

## 메이낭(梅娘) 소설 속 모성 인식에 대한 고찰\*

— 「계」, 「난쟁이」, 「수술하기 전」을 중심으로

정겨울\*\*

### 목 차

1. 들어가며
2. 「계」: 어머니의 부재와 우울
3. 「난쟁이」: 모성에 대한 환상과 추구
4. 「수술하기 전」: 모성 예찬과 삶의 모순성
5. 나오며

### 국문초록

198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메이낭(梅娘)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는 작가의 여성인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메이낭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로 겪었던 트라우마가 이후 그녀의 문학창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모성'이라는 키워드는 메이낭의 작품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모성이 지니는 중층성에 대한 묘사를 비롯해 이에 대한 사유와 탐구는 줄곧 메이낭의 작품 세계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메이낭의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서 재현된 모성의 중층적 성격과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이 모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사유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38613).

\*\* 건국대학교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 연구원

해 고찰한다.

**키워드:** 메이냥, 여성문학, 점령구문학, 모성인식, 모성, 어머니, 트라우마

## 1. 들어가며

1931년 9·18사변으로 만주(滿洲) 지역이 일본에 함락되었고, 1937년 중일 전쟁의 발발과 함께 상하이(上海)와 화베이(華北) 지역 역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점령지역이었다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중국 현대문학사에서는 당시 해당 지역들에서 발생한 문학을 점령구(혹은 윤함구(淪陷區)) 문학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이유로 인해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점령구 문학에 대한 서술은 줄곧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일제 잔재의 청산과 대륙의 공산화,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며 점령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 대다수는 반동분자로 몰려 정치적 핍박을 받았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문학창작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금기시되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사회의 변화와 문학사 다시 쓰기와 같은 새로운 흐름 속에서 점령구 지역 문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 및 작품들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메이냥(梅娘)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롭게 발견, 평가된 작가 중 하나였다. 특별히 메이냥은 만주국과 화베이 두 지역을 기반으로 문학창작을 전개했던 작가였다. 1920년 러시아 블로디보스토크에서 출생한 메이냥은 장춘(長春)에서 유년시절을 보낸다. 1932년 전 가족이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지난(濟南), 톈진(天津) 등지로 잠시 동안 이주하기도 했지만 1933년 11월 다시 장춘으로 돌아오게 되고 메이냥은 줄곧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다. 1936년 『대동보(大同報)』 편집부에 들어간 메이냥은 같은 해 처녀작인 『소저집(小姐集)』을 출판하고 1937년에는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일본 유

학 중 남편인 류룡광(劉龍光)을 만났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다. 1938년 잠깐의 귀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낸 메이낭은 1940년 유학생할 중 단편소설 작품집 『제2대(第二代)』를 장춘에서 출판한다. 1942년 귀국 후 메이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 베이핑(北平)에 정착하였고 이곳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속, 당시 화베이 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작가로 급부상한다.<sup>1)</sup>

특히 메이낭은 당시 화베이 문단에서 대중적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인물로 상하이의 장아이링(張愛玲)과 함께 1940년대 점령구 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꼽힌다.<sup>2)</sup> 그러나 1980년대 대륙에서 장아이링과

1) 이러한 이유로 메이낭을 만주국 작가(동북연합구작가)의 일원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1940년대 화베이에 정착 후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고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메이낭을 화베이 점령구 문학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메이낭 연구는 1980년대 후반 화베이 문단 연구와 함께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 점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그녀를 화베이 점령구 문단의 대표적 작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초기 문학 활동을 비롯해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주국 문학에 대한 관심과 해당 지역 작가들과의 교류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메이낭의 문학을 제한적 지역의 범주에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범주에서 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 이와 관련해서는 “南玲北梅”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메이낭은 「北梅說給南玲的話」(『梅娘近作及書簡』, 北京: 同心出版社, 2005)에서 1942년 ‘가장 인기 있는 여성작가’ 투표에서 장아이링과 자신이 선정되었고 이로부터 “南玲北梅”라는 명칭이 유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南玲北梅”가 메이낭의 문학사적 위치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식어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명칭에 대한 유래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止庵은 「關於“南玲北梅”」(『相忘書』,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7)에서 1942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하며 당시 장아이링의 경우 홍콩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며 소위 그녀의 대표작들을 발표하기 전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부 사건들에 대한 기존 연구와 관련해 시간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南玲北梅”는 실제로 1940년대 문학사에서 통용된 표현이기보다는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굳어진 표현으로 유추할 수 있다. 張泉에 의하면 “南玲北梅”라는 표현이 1986년 陳放的 「一個女作家的一生」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수식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南玲北梅” 명칭 자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1940년대 상하이와

그녀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메이양의 삶과 문학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장아이링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샤즈칭(夏志清)과 같은 해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중국 문학사에서 재평가되는 기회를 얻었지만 메이양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만주국 시기 메이양의 작품이 일본이 주최한 ‘대동아문학상(大東亞文學賞)’을 수상했던 것을 비롯해 그녀가 일본 문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수의 일본 작품을 번역했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메이양은 해방 이후 줄곧 친일작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비록 1978년 메이양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당시 중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친일작가이자 반동분자로 평가되었던 메이양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국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200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서 메이양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아이링 연구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면 여전히 큰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중문학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 학계에서 메이양은 상당히 생소한 작가인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 현재까지 국내에 발표된 메이양 관련 학술논문은 총 2편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있다.<sup>3)</sup>

현재까지 진행된 메이양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작가의 여성의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메이양의 작품은 다양한 여성들의 인생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여성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신식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위 신여성들이 사회에 대거 등

화베이 문단을 회고하며 당시 대중들에게 환영받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서 장아이링과 메이양을 평가하는 수식어로서 “南玲北梅”의 사용은 그 의미나 상징성에 있어 일정 부분 수용이 가능하다고도 여겨지는 바이다.

3) 김은희, 「1940년대 女性小說의 一面: 梅娘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004); 최은정, 「한중 현대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광기': 백신애의 「광인수기」와 메이양의 「수술하기 전」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 2010).

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가 애정이나 경제적 문제에 있어 여전히 남성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 결말은 메이낭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가가 당시 중국 사회, 특히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바라보던 시선과 함께 드러내는 강렬한 여성의식과 남성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은 이후 메이낭 연구의 주된 논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가 있었기에 메이낭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 및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에 집중된 연구 경향은 메이낭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일정한 제약울 가져오기도 했다.<sup>4)</sup>

이와 같은 연구 현황에 대한 보완과 메이낭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제시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메이낭 작품에 재현된 모성의 중층적 성격과 형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로 ‘모성’이라는 주제는 메이낭의 작품세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메이낭이라는 필명이 사실은 ‘어머니가 없다’는 메이낭(沒娘)의 해음(諧音) 현상에서 유래<sup>5)</sup>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부재와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메이낭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메이낭은 평생에 걸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성에 대한 갈구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처음에 나는 어머니가 나의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어린 소녀의 순진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나

4) 이를 반영하듯 근래에 중국 내에서 발표된 메이낭 관련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中國知網, www.cnki.net 검색 내용 참고(2021년 5월 12일 기준))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시각과 달리 메이낭 작품 속에 내재한 생명의식에 대한 고찰, 양성(兩性)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 작가의 개인적 ‘유랑(游走) 경험’ 및 서사적 특징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 柳青, 「媽媽不肯過生日」, 『臥聽風雨: 2001年筆會文粹』, 上海: 文匯出版社, 2002, 123쪽.

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나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무뚝뚝하게 대했고, 화가 나면 욕을 해댔다. 나는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항상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sup>6)</sup>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는 하지만 메이냥은 첩의 자식이라는 낙인과 어머니(생모)의 자살로 인해 상처로 가득 찬 유년기를 보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 그녀의 인생에서 어머니는 항상 부재하는, 그러나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구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모성에 대한 강한 욕망이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과 이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메이냥의 작품 곳곳에서도 잘 드러난다. 때로는 연민과 동정으로, 때로는 숭고한 희생으로, 때로는 집착과 비극적 결말의 원인으로 표현되는 모성의 중층적 성격은 소설의 배경을 비롯해 인물의 기형적 심리 및 행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모성에 대한 작가 개인의 사유와 탐구, 이에 대한 표현은 줄곧 메이냥의 작품 세계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세 편의 소설 「계(蟹)」, 「난쟁이(侏儒)」, 「수술하기 전(動手術之前)」을 중심으로 메이냥이 작품 속에서 재현한 모성 형상의 중층적 성격과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어머니 혹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심리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 2. 「계」 : 어머니의 부재와 우울

자전적 성격이 짙은 메이냥의 중편소설 「계」<sup>7)</sup>는 메이냥의 ‘수족3부작(水

6) 梅娘著, 張泉選編, 「我沒看見過娘的笑臉」, 『梅娘懷人與紀事』,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4, 3쪽.

7) 메이냥은 이 작품으로 1944년 제3회 ‘대동아문학상’을 수상한다. 1943년에도 이미 소

族3部作)<sup>8)</sup> 중 두 번째로 탄생한 작품이다. 「계」는 만주국 진후 시기 3대에 걸친 쑤(孫)씨 집안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그 배경에는 만주국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러시아와 일본 등과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외국 열강의 만주국에 대한 세력 다툼이 한창인 어수선한 상황에서 「계」의 주인공인 링(鈴)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집안의 기둥과도 같았던 아버지마저 잃으며 집안에서 더욱 쓸쓸한 처지가 된다. 링은 비록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자신의 자유를 억누르는 집안의 분위기와 이기적인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던 링의 아버지는 사실상 쑤씨 집안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가세는 점점 기울어가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비록 계모가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친자식들만을 애지중지하며 링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링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여의고 나서 사실상 고아나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

「계」의 주인공 링은 집안의 억압적 분위기와 가족의 분열, 그리고 식민 지배라는 외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소녀의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남성 중심적 구조의 전통적 가족 위계질서와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한없이 탄식한다. 이로 인해 「계」는 메이냥의 소설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자아의식에 대한 고찰과 남성 중심적 가족·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식민지 만주국 사회의

설 「물고기(魚)」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상외佳作(賞外佳作)’을 수상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수족3부작’은 현재까지도 메이냥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그녀에게 대중적 인기와 명예를 안겨준 작품으로 평가 받지만 해당 작품들이 일본이 주최한 각종 문학 행사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은 해방 이후 그녀가 ‘친일작가’로 평가받아 상당한 고초를 겪게 된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 8) 일반적으로 메이냥의 소설 「물고기」(1941), 「계」(1941), 「조개(一個蚌)」(1942)를 지칭한다. 세 소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물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주제의 유사성과 여성의 자아의식에 대한 고찰 등 비슷한 부분이 많아 메이냥 연구에 있어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 세 작품은 메이냥의 소설 풍격을 잘 드러내는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한다.

구조적 문체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계」의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주인공 링과 그 주변인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메이냥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한 여성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특히 ‘수족3부작’인 「물고기」의 편(芬), 「계」의 링, 「조개」의 메이리(梅麗)는 공통적으로 어머니를 여윈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비록 작품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의 부재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들은 이미 그러한 전제 하에 시작점에서부터 불행하고 불완전한 삶을 영위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편(芬)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사실 그는 고향에 아내를 두고 있던 남자로 편(芬)이 자신의 첩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한다. 편(芬)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피로워하지만 자신을 위로해줄 가족이 없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홀로 고통을 감당해야만 한다. 특히 편(芬)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며 더 이상 가족 간의 교류가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메이리 역시 어머니의 부재와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계모는 메이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안의 안위를 위해 원치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강요한다. 사실 메이리는 사랑하는 연인 치(琦)가 있지만 그들은 서로 간의 오해와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야 만다.

이처럼 메이냥 소설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여성 인물들은 모두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가족 관계에서 소외받거나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된 인물들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설정 자체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모성의 부재로부터 오는 불안정한 심리는 그녀를 평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sup>9)</sup> 흥미로운 지점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박탈감

9) 문학 속 주인공이 겪는 ‘어머니의 부재’ 현상과 관련해서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참고할

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는 존재로 이러한 주인공의 곁에는 종종 인자하고 의지할만한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하기도 한다.<sup>10)</sup>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이들이 겪는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오는 상실감을 완전하게 채워 줄 수는 없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낸시 초도로(Nancy Chodorow)는 이러한 지점에 대해 딸들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은 현실적인 부분들로부터 더욱 기인하는 것이지만 정서적 만족이나 친밀감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분석한다.<sup>11)</sup> 즉, 이들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 특히 그것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 아버지의 존재는 그녀들의 상실감을 완전히 위로해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아버지마저도 그녀들의 삶에서 곧 부재하게 되며 주인공들은 더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링은 끊임없이 또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모성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링의 주변에는 또 다른 모성 혹은 이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가장 먼저 링의 할머니를 들 수 있다. 할머니는 집안의 최고 어른이자 가족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링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할머니는 매일 같이 죽은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린다. 이런 할머니를 돌봐주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링뿐이다. 할머니 역시 자신을 성심

---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이의 곁에서 떠나는 순간 아이는 죽음과 흡사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늘 옆에서 자신을 지켜줄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러한 존재의 갑작스런 부재는 아이에게 상당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아이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이중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왕은철,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 서울: 현대문학, 2017, 82-83쪽 참고.

10) 「계」의 링과 메이냥은 상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메이냥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된다.

11) 낸시 초도로우 지음, 김민예숙·강문순 옮김, 『모성의 재생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132-134쪽 참고.

성의껏 돌봐주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손녀를 의지한다. 또한 할머니는 부모를 잃고 홀로 된 링을 가엾게 여기며 그녀가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란다. 비록 링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과 신뢰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어린 소녀의 예민한 감수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같은 개인적 상처와 방향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링은 할머니로부터 일정 부분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으며 그렇기에 여전히 가족 내에서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두 번째 인물로는 링의 계모를 들 수 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작품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회에서 계모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콩쥐팍쥐」, 「장화홍련」이나 서양의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 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권선징악의 결말로 마무리된다. 「계」에서 링의 계모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계모와 같이 링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악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는 선한 어머니의 모습 역시 아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링에게 살가운 태도를 유지하지만 줄곧 마음속에는 링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다.<sup>12)</sup> 계모는 링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집안의 재산을 실제로 관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몰래 자기의 비상금을 만들어 둔다. 그녀가 이렇게 가족들을 속인 이유는 사실상 자신의 두 친 아들들을 위해서인데 그녀는 아들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자신의 친생이 아닌 링은 그저 자신의 잠재적 위협일 뿐이며 그녀는 오히려 링이 자

12) 일명 '신데렐라 효과'와 관련해서는 캐나다의 진화심리학자인 마틴 데일리(Martin Daly)와 마고 윌슨(Margo Wilson)의 논의를 참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의붓자녀에 대한 계모의 학대는 일종의 본능과 같은 것이며 특히 이것이 제한적인 '자원'과 마주쳤을 때 그 현상이 더욱 극대화되며 소위 자신의 '핏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집착이 형성됨을 주장한다. 마틴 데일리, 마고 윌슨 지음, 주일우 옮김, 『신데렐라의 진실』, 서울: 이음, 2011, 28-33쪽 참고.

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 시종일관 노심초사한다.

계모는 비록 링의 생모가 아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그녀의 ‘어머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계모의 무관심과 자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링으로 하여금 따뜻한 모성은커녕 오히려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집안이 부유했을 때는 유지되던 어머니와 딸, 가족 간의 화목한 관계가 아버지의 죽음과 가세의 변화로 완전히 무너지며 이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메이낭 역시 계모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큰 공백을 느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링의 모습에서는 메이낭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우울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던 어린 소녀에게 있어 계모의 무관심과 냉대는 큰 상처로 남겨졌고 이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과도 연결되는데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를 시작으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결핍과 모순적 심리의 표출은 이후 메이낭의 문학 곳곳에서 그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게 된다. 이처럼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해 아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메이낭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장편소설 「작은 부인(小婦人)」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목을 엿볼 수 있다.

계모의 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자 강렬한 모성의 감정이 그녀를 고무시켰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목숨을 버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샤오린(小麟)의 유일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위안량(袁良)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겠지만, 샤오린은 제2의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sup>13)</sup>

세 번째 인물로는 하인 집 딸인 추이(翠)를 들 수 있다. 작품 전체의 구성에 있어 추이는 사실상 링으로 하여금 모성에 혹은 자매애를 가장 강하게 느끼

13) 梅娘著, 張泉選編, 「小婦人」, 『梅娘小說散文集』, 北京: 北京出版社, 1997, 343-344쪽.

도록 만들어 주는 인물이다. 추이는 성실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게으르고 교활한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도 꺾이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녀이다. 링은 추이보다 비록 몇 살 어리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추이에게 각별한 정을 느끼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던 링은 추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추이는 링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 할머니를 성심성의껏 보살핀다. 추이의 따뜻한 마음씨와 도움은 링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고 이런 추이의 모습에서 링은 어머니 혹은 언니의 따뜻한 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그러나 추이는 결국 썬씨 집안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만다. 할머니의 간병으로 자주 집안에 드나들던 추이를 셋째 삼촌이 탐냈고 결국 그는 추이의 아버지와 작당하여 추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자 한다. 결국 추이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추이가 친척집에 갔다며 둘러댄다. 링은 추이의 갑작스런 실종에 의아함과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추이 역시 완전하게 링의 불안정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다. 실제로 추이는 정서적으로 링에게 가장 의지가 되던 인물이긴 했지만 썬씨 집안의 하인과 주인집 딸이라는 계급적 차이로 인해 완전하게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추이는 링을 때로는 동생처럼, 친구처럼 진심으로 아꼈지만 주인집 아가씨이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그녀의 고민과 탄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결국 이들의 관계 역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파괴되며 링은 더욱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들, 특히 친구나 동년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메이냥은 상당히 민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계모의 냉대를 바로 이러한 관계 형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메이냥의 학창시절 경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12살이 되던 해 여름,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나는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학우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언니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나의 차가웠던 어린 영혼이 되살아났다. 나는 여자와 여

자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정(情)을 알게 되었다. 나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요일에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여자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속에서 성장했다. 왕성한 청춘과 즐거운 마음을 간직한 채.<sup>14)</sup>

생모로부터도, 계모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정(情)을 메이낭은 학창시절의 학우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된다. 관심, 애정, 청춘, 웃음과 같은 것들은 메이낭이 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을 만나며 얻게 된 것들이었다. 특히 어머니나 자매로 상징되는 여성들과의 관계 형성과 이들이 보여준 관심과 애정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우울하고 어둡기만 했던 그녀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보았을 때 링과 추이의 관계 역시 작가의 이러한 독특한 심리적 기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메이낭은 「계」에서 링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와 모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모멸감과 상처로 얼룩진 한 인간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비록 링의 출로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작품은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안의 몰락과 정서적 상처, 암울한 시대적 배경은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동시에 링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어린 소녀의 복잡한 감정과 사랑에 대한 갈구는 한편으로 메이낭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이상적 모성에 대한 환상을 쫓거나 이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다수 인생이 겪는 상처와 현실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담담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14) 梅娘著, 張泉選編, 「我沒看見過娘的笑臉」, 『梅娘懷人與紀事』,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4, 4쪽.

### 3. 「난쟁이」 : 모성에 대한 환상과 추구

1941년 『중국문예(中國文藝)』에 발표한 단편소설 「난쟁이」는 기존의 메이낭 작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독특한 소재의 소설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난쟁이」는 이전 시기 메이낭 소설의 소재가 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에서 그 중심이 사회로 옮겨 온 것으로 “인간의 추악함과 감정에 대한 묘사가 더욱 극대화된 작품”<sup>15)</sup>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작품은 주인공인 지식인 여성 ‘나’가 꿈추인 한 소년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특별한 ‘애정’의 감정을 느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대략적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쟁이」는 주인공인 ‘나’를 주인집 잡일꾼인 난쟁이 아이가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약간은 모자라고 굼떠 보이는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만 항상 집주인 아주머니의 구박과 함께 동네 사람들의 놀림을 받기 일쑤다. 사실 이 아이는 집주인이 외에도 얻은 자식이었는데 생모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맞아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하며 같이 목숨을 잃었고, 혼자 남은 아이를 불쌍히 여긴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집에 데리고 온 것이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이유 없는 학대와 폭력에 언제나 움츠러든 아이는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나는 이러한 난쟁이 아이에게 점점 연민을 느끼고, 그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매일 먹을 것을 남겨둔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 잠을 청하던 나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 것을 느낀다. 그는 다름 아닌 주인집의 난쟁이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내 침대로 다가와 나의 손을 만지더니 곧 그 손을 자신의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간다. 놀란 나머지 벌떡 일어난 나를 보고 기겁한 아이는 도망가고 그 이후로 나를 피해 다닌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속상할 따름이다.

남편이 돌아온 후 나는 난쟁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남편은 그 아이를

15) 徐迺翔, 「梅娘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3년 제1기, 73쪽에서 재인용.

감화원(感化院)<sup>16)</sup>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한다. 추운 날씨와 며칠 동안 심란한 마음에 병이 난 나는 이튿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난쟁이 아이와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아이의 비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고 나의 뒤쪽에서 미친 개 한 마리가 달려 들었다. 눈 깜짝할 새 사나운 개가 난쟁이 아이를 덮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개를 떼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나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겨우 집으로 들어왔지만 난쟁이 아이가 걱정되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하며 나를 안심시키려했지만 이웃집 이씨 아주머니는 아이가 개에 물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순간 나는 가슴속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작품에서 메이낭은 난쟁이 아이의 꼬추라는 신체적 결함과 함께 그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모성의 결핍과 연결된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받은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울분이 아이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은 이웃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웃집 이씨 아줌마가 “아이가 바보가 된 것은 하도 맞았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때리는데 누가 당하겠어요”<sup>17)</sup>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난쟁이 아이는 어쩌면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심부름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제법 귀엽게 느껴졌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싶었다. 그의 기구한 사연을 알고 난 이후에는 더욱 그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였고, 매일 창가에 먹을 것을 놓고 가는 행위를 통해 나와 그 아이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더

16) 일종의 청소년 교정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17) 梅娘著, 張泉編,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梅娘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133쪽.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주인공 ‘나’는 비록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젊은 지식인 여성이다. 난쟁이 아이의 대한 ‘나’의 감정은 여러 층위의 복합적 감정들로 뒤섞여 나타난다. 본래 난쟁이 아이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동정과 연민의 심리가 그 출발점이었지만 아이와의 지속적인 교류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는 그를 자신의 ‘애인(愛人)’으로 부르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아이가 방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손을 잡고 거북한 성적 행위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그녀는 오히려 이에 대한 혐오보다는 자신의 태도에 놀라 도망간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이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애정 표현에 서투른 것일 뿐이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그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랑(眞情)”을 표현하는 행위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18)</sup>

「난쟁이」에서 주인공 ‘나’가 보여주는 감정은 근본적으로 박애주의적 태도에 기초를 두는 사랑과 동정의 표출을 수반한다.<sup>19)</sup> 주목할 점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인공 ‘나’는 난쟁이 아이의 결핍된 모성애를 충족시켜주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일종의 위안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위는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시혜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난쟁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만 그 과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그녀는 언제나 난쟁이 아이를 구제해야 할 연민의 대상이자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겼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녀의 행위는 난쟁이 아이의 결핍된 모성애 혹은 다른 어떤 사랑의 감정과 그에 대한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수는 없었다.

더불어 난쟁이 아이를 학대하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그의 생부(집주인) 및

18) 梅娘著, 張泉編,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梅娘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136쪽.

19) 張泉, 「梅娘: 她的史境和她的作品世界」,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7년 제 2기.

이웃들의 방관적 태도는 이들의 몰인정과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히 이씨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아이의 생모가 사실은 (집주인 아주머니의 묘사처럼) 매춘부가 아니라 그저 가난한 집 출신의 평범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는 “한 명의 아리따운 여인이 어떻게 비참하게 자신의 청춘을 상실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분명히 온화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녀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상당히 귀여웠겠지!”<sup>20)</sup> 라고 상상한다. 동시에 위축된 난쟁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마치 반짝이는 별 하나가 떨어져 돌이 되었고, 이 돌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마구 짓밟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sup>21)</sup>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이의 기형적 신체나 성격, 정신적 미숙함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결핍과 학대에 있다고 믿게 된다.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있어 난쟁이 아이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로 그녀는 항상 구타와 학대로 아이를 대한다. 이러한 기형적인 심리의 표출은 사실상 그녀가 자신의 남편, 사회, 그리고 아이의 생모(죽은 ‘선량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 난쟁이 아이는 그저 불쌍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메이냥은 ‘나’를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는 않지만 집주인 아주머니의 이중적 태도와 주변인들의 모습을 시종일관 조소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루빨리 이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아이를 탈출시키고자 한다. 작가 역시 모성애의 결핍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만큼 난쟁이 아이의 모습 곳곳에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난쟁이」에서 작가가 인식한 사회적 문제와 서사대상의 변화는 메이냥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메이냥은 「난쟁이」에서 아동과 가족, 박애주의와

20) 梅娘著, 張泉編,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梅娘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133쪽.

21) 같은 책, 133쪽.

22) 시몬 드 보부아르, 저, 조홍식 역, 『제2의 성(하)』, 서울: 을유문화사, 1996, 234쪽.

모성애,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류 보편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감정의 표현과 소외받는 인간 군상에 대한 관심은 작가가 이전 시기 창작에서 주로 다루었던 여성의 비참한 현실과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이와 같은 모성애적 사랑에 대한 추구하고 사유는 기존의 메이냥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던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혼인이나 애정(사랑)에 대한 사유가 사회로 전환되고”<sup>23)</sup>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난쟁이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과 관심이 불완전했지만 불행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자 했던 ‘나’의 노력은 한편으로 작가의 모성에 대한 환상과 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나’가 난쟁이 아이에게 베풀어 준 온정은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수많은 어린 영혼에 대한 작가가 보내는 일종의 위로는 아니었을까.

#### 4. 「수술하기 전」: 모성 예찬과 삶의 모순성

메이냥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여성의식의 표현은 여성의 젠더역할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존 통념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있다. 그렇기에 메이냥은 대다수의 작품에서 여성의 정조와 성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메이냥 문학연구에 있어서 「수술하기 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이 작품은 한 번의 일탈로 인해 성병을 얻은 여성이 병원을 찾아와 의사에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심정을 독백형식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자는 병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고통보다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녀는 의사에게 자기를 냉대하

23) 張泉, 「梅娘: 她的史境和她的作品世界」,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7년 제 2기.

는 남편과 성병이 있음을 알고도 자신을 범했던 남편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며 남성들에 대한 분노와 이를 여성의 잘못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광기어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광기와 분노는 사실상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작가 자신의 불안과 분노의 심리 표출로도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당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메이낭 작품 속에 내재한 남성 권위주의적인 사회와 규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수술하기 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특징은 화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두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결국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이는데 이러한 결심이 바로 강력한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모성애의 발현 시점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두서없이 표출하는 과정에서 잠시나마 이성을 되찾는 순간이기도 하다.

내 이 병은 도대체 화류병 중에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내 생명을 빼앗아 가나요? 그게 내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내 시력을 손상시키나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무서운 병독을 내 태아에게도 옮기나요? 말씀해 주세요. 박사님! 저 절대로 다시는 미친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게요. 내 마음엔 가장 순수한 모성애가 넘치고 있어요. 이 모성의 위대한 사랑이 나의 정신도 안정시켜 줘요. 나는 내 몸 안의 작은 생명이 잘 자라나길 간절히 바래요. 그가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어요.<sup>25)</sup>

이러한 모성애의 표출은 다소 갑작스럽고도 모순적이다. 아이는 그녀를 이

24) 최은정, 「한중 현대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광기’-백신애의 「광인수기」와 메이낭의 「수술하기 전」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집, 2010, 184쪽 참고.

25) 메이낭 저, 김은희, 최은정 역, 「수술하기 전」, 『중국현대여성작가작품선』, 서울: 어문학사, 2007, 309-310쪽.

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날 밤’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에 그녀는 오히려 아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삶의 의지를 확인한다. 의사가 그녀의 병은 사실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환희에 차서 “내 몸의 새 생명을 위해 새로이 더 멋진 삶을 살 거예요”<sup>26)</sup>라고 외친다. 이처럼 메이냥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생명과 ‘어머니 됨’에 대한 일종의 집착과 성화(聖化)는 동시기 다른 여성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더욱 잘 부각된다.

만주국 성립 직후 고향을 떠나 관내로 이주했던 샤오홍(蕭紅)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대표작인 「생사의 장(生死場)」에서 여성 인물들의 출산 과정을 동물의 번식과 같이 묘사한다. 무엇보다 그녀들의 임신과 출산은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늘져 있으며 대부분의 임신은 여성의 자발적 의지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샤오홍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여성의 신체적 고통과 그 처절한 현장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집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다! 산 모를 일으키자 아이는 곧바로 구들장 위로 떨어졌다. 마치 어떤 물체가 구들장 위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여자는 피비린내가 나는 한 가운데 드러누워 온 몸에 피를 적셨다.<sup>27)</sup>

샤오홍 자신 역시 두 번의 출산 경험을 겪었지만 모두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일찍 잃고 만다.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산문 「버려진 아이(棄兒)」에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 보내야 했던 친(芹)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여기에는 샤오홍의 실제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 아이를 떠나 보내는 순간까지도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을 먼저 걱정하는 친과 그녀의 남

26) 같은 책, 310쪽.

27) 蕭紅, 「生死場」, 『蕭紅全集·小說卷(一)』,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3, 246쪽.

편에게 있어 아이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아이에게 더욱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냉정함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만주국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고 메이낭과도 친분이 깊었던 여성작가 우잉(吳瑛)<sup>28)</sup>은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의 작품 「반항하는 여자(女叛徒)」의 주인공 리핑(李萍)을 들 수 있다.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리핑은 남편이 출장간 사이 자신의 자유로운 연애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시어머니와 자신의 아이를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즐긴다. 그러나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지우기 위해 낙태를 결심,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림자”이자 “공포스럽고 귀찮으며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일 뿐이다.<sup>29)</sup> 비단 작품 속 묘사뿐만 아니라 우잉의 개인적 경험에 있어서도 그녀는 아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일종의 방해물로 여겼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sup>30)</sup> 실제로 우잉은 출산 후에 전통적인 여성처럼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일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다.

28) 메이낭과 우잉의 인연은 1936년 메이낭이 『대동보』에서 활동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외에도 메이낭과 우잉 모두 장춘(長春)을 기반으로 형성된 초기 ‘문총파(文叢派)’의 창립 멤버이자 핵심 멤버이기도 했다.

29) 吳瑛, 「女叛徒」,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吳瑛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18쪽.

30)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철학자 엘리자베트 바덴테르(Elizabeth Badinter)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자유를 갈망했던 여성들의 경우, 이 여성들은 이기적이었는데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실질적인 구속을 모두 제거해 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그들에게 자유란 세 가지 속박으로 상징되던 여성으로부터 독립과 실제적인 자립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속박이란 자식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모성, 남편에게 복종시키는 부부관계, 사회규범에 복종하게 만드는 사교계 생활에 대한 취미였다. 자유를 갈망하던 그녀들에게 자유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지적 해방이라는 노동으로 획득된 것이었다.” 엘리자베트 바덴테르 지음, 심성은 옮김, 『만들어진 모성』, 파주: 동녘, 2009, 117쪽.

그래서 과도한 가사노동과 아이 양육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여관에서 생활하며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sup>31)</sup> 이러한 우잉의 태도는 메이양의 작중 인물의 성격을 비롯해 적극적인 모성애의 발현과 있어 상당히 대조적으로 다가온다.

샤오홍과 마찬가지로 관내로 이주해 활동했던 여성작가 바이랑(白朗)은 여성의 출산과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복합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녀는 산문 「소중한 기념(珍貴的紀念)」에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던 자신의 이야기와 세 번째 아이를 얻으며 이러한 감정이 급변한 경험을 그려내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기회를 저버려야 했던 시기 그녀는 심각한 분노와 함께 두 아이의 죽음에 있어서도 상당히 냉정한 태도로 일관한다.

태어난 지 만 3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조금도 안타  
까워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두 번째 아이  
가 숨을 멈춘 순간에도 나는 정말 모질게도 기뻐 날뛰었다. 나는 오히려  
아이에 대한 해방으로 인해 가벼워짐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여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나를 욕했다.  
“너는 어머니 될 자격이 없어!”<sup>32)</sup>

그러나 이러한 냉정한 태도는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급변한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아이에 대한 걱정과 사랑은 결국 아이가 뇌막염으로 목숨을 잃고 난 이후에도 종종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출된다. 비록 바이랑 역시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는 신체적 고통과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태도어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모

31) [加]諾曼·史密斯(Norman Smith), 「一個有著生氣和希望的標記」,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吳瑛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1쪽; 李冉, 「“虛園”裏走出的女作家」,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吳瑛作品集』, 4쪽 참고.

32) 白朗, 「珍貴的紀念」, 『中國新文學大系·1927-1937·第21集·散文集(二)』,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7, 710쪽.

성에 대해 표현에 있어서는 더욱 모순적이고 복잡한 감정의 표출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수술하기 전」에서 보여주는 생명에 대한 극도의 집착과 환희는 숭고하고 초월적인 사랑으로서 모성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에는 일종의 광기와 불안감도 함께 뒤섞여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상처로 뒤섞인 모성의 표출은 메이낭이 인생 후반기에 겪었던 개인적 고난과 극복에 과정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46년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세 명의 아이를 키우던 메이낭은 1950년대 우파로 몰리며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메이낭은 이 시기에 병약했던 작은 딸을 먼저 잃게 되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아들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또 다시 잃게 된다. 특히 메이낭은 문화대혁명 시기 반동분자로 몰려 극심한 차별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었다. 당시 결혼을 했던 큰 딸은 남편 덕에 ‘홍오류(紅五類)’로 분류되었지만 이로 인해 어머니와의 왕래를 단절한다. 또한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혁명의 열기에 휩쓸려 집을 떠나 혁명 운동에 뛰어들었고 결국 메이낭은 홀로 쓸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sup>33)</sup> 그러나 그녀는 자녀들을 잃고 사회적으로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어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자 했다. 유일하게 남은 큰 딸에게도 원망과 섭섭함보다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고자 했다. 이는 한편으로 「수술하기 전」에서 화자가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며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모성의 용기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메이낭의 이러한 성격은 그녀를 평소에 쑤이(孫姨)로 불렀던 작가 스테성(史鐵生)의 회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2년 스테성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 온 친구들과 나눈 대화]  
“그녀(메이낭)의 딸은 외지에 있고, 아들은 병으로 몸져 누운지 몇 년

33) 梅娘著, 張泉選編, 「記憶斷片」, 『梅娘懷人與紀事』,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4, 116-117쪽.

째야.”

“그녀는(우파였기 때문에) 밖에서 몰래 일거리를 찾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도 병든 아들을 돌보고 있어.”

“그런데 이웃들은 한 번도 그녀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탄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해.”

“루이후(瑞虎)<sup>34)</sup> 말로는 그녀는 슬플 때면 혼자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고 해.”

“퇴원하게 되면 꼭 그녀를 만나봐.”

“내가 보장하는데 너는 아마도 그녀만큼 낙관적인 사람은 보지 못했어. 그 노부인은 너보다도 더한 고생을 했어.”<sup>35)</sup>

나는 그녀(메이냥)가 아무리 강건한 성격의 소유자고 특수한 인생 경험을 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큰 딸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sup>36)</sup>

실제로 1943년 「수술하기 전」이 발표될 즈음 이미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던 메이냥은<sup>37)</sup> 자신의 작품 속에서 여전히 대다수 여성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공명(共鳴)했지만 동시에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역시 드러냈다. 이는 어머니의 부재로 언제나 모성이 그리웠던 작가의 심리와 아이의 탄생과 함께 변화된 그녀의 삶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메이냥의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이야기의 반복과 모성에 대한 갈구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작가의 사유 세계를 반영하는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메이냥의 작품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모성의 형태는 여전히 상당한 불안과 모순을 내재하고 있지만 말이다.

34) 스테성의 어린시절 친구로 루이후와 메이냥은 먼 친척관계였다고 한다.

35) 史鐵生, 「孫姨和梅娘」, 『鴨綠江(上半月版)』, 2015년 제3기, 109쪽.

36) 같은 논문, 110쪽.

37) 메이냥은 1942년 이미 큰 딸 류칭(柳青)을 임신한 상태였다.

## 5. 나오며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흔적, 그리고 모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재현은 메이낭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메이낭은 1936년 처음 문단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민즈(敏子), 쑤민즈(孫敏子), 링링(玲玲) 과 같은 다양한 필명들을 사용했지만 1937년부터는 줄곧 메이낭이라는 필명만을 고집하였다.<sup>38)</sup> 이러한 사실은 그녀의 문학세계와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와 무게감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메이낭의 문학은 줄곧 여성의 삶에 대한 작가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모성에 대한 추구하고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녀의 문학은 다양한 여성인물들의 서로 다른 경험과 심리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여성들의 삶과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의 부재로 겪었던 유년시절의 상처와 우울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보상과 치유로서 모성 혹은 이에 상응하는 관계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그려낸다. 그렇기에 작품 속에서 드러난 작가의 모성 인식은 소위 일반적인 모성애로 일컬어지는 절대적인 희생이나 사랑의 모습만은 아니며 짙은 우울감과 불안정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소설 「계」, 「난쟁이」, 「수술하기 전」에 대한 독해를 통해 메이낭의 모성 인식과 그 재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메이낭의 작품을 읽어내는 데 있어 ‘모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메이낭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여성의식’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성 인식이 두드러지게 표출된 몇몇의 작품들은 메이낭의 문학 창작이 초기의 ‘개인적’ 여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가족,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음

38) 「梅娘爲滿洲國時期作品目錄初編」(梅娘著, 張泉編,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梅娘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에서 메이낭이 작품 발표 시 사용했던 필명들을 참고하였다.

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1940년대 이르러 메이양의 문학세계가 더욱 확장되고 성숙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머니의 부재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 문화대혁명 시기의 사회적 핍박과 고립 등 수많은 역경을 겪어온 작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상 그녀의 문학은 줄곧 암울했던 중국의 현실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이어나갔다. 특히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메이양의 예민한 감수성과 모성에 대한 예찬은 작가의 이러한 긍정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상 당시 만주국과 화베이 문단의 문학이 식민지 사회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폭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메이양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여성들의 보편적 삶과 그들이 겪었던 상처를 되돌아보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모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탐구와 사유는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한편으로 메이양의 작품이 당시 점령구 문학에서 지니는 독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와 같은 작가의 사회적 인식과 여성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문학이 지니는 통시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參考文獻

- 梅娘著, 張泉編,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梅娘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 梅娘著, 張泉選編, 『梅娘小說散文集』, 北京: 北京出版社, 1997.
- 梅娘著, 侯健飛編, 『梅娘近作及書簡』, 北京: 同心出版社, 2005.
- 梅娘著, 張泉選編, 『梅娘懷人與紀事』, 北京: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2014.
- 上海文藝出版社編, 『中國新文學大系·1927-1937·第21集·散文集(二)』,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7.
- 文匯報筆會編輯部編, 『臥聽風雨: 2001年筆會文粹』, 上海: 文匯出版社, 2002.
- 吳瑛著,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吳瑛作品集』,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7.
- 蕭紅, 『蕭紅全集·小說卷(一)』,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13.
- 止庵著, 『相忘書』,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7.
- 메이낭 저, 김은희, 최은정 역, 『중국현대여성작가작품선』, 서울: 어문학사, 2007.
- 왕은철,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 서울: 현대문학, 2017.
- 낸시 초도로우 지음, 김민예숙·강문순 옮김, 『모성의 재생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 마틴 데일리, 마고 윌슨 지음, 주일우 옮김, 『신데렐라의 진실』, 서울: 이음, 2011.
- 시몬 드 보부아르, 저, 조홍식 역, 『제2의 성(하)』,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엘리자베트 바덴테르 지음, 심성은 옮김, 『만들어진 모성』, 과주: 동녘, 2009.
- 胡娟, 「梅娘研究述評」, 『文教資料』, 2007년 제34기.
- 邱丹, 「梅娘: 一脈文心, 續寫傳奇」, 『鴨綠江(上半月版)』, 2015년 제3기.
- 史鐵生, 「孫姨和梅娘」, 『鴨綠江(上半月版)』, 2015년 제3기.
- 徐迺翔, 「梅娘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3년 제1기.
- 張泉, 「梅娘: 她的史境和她的作品世界」,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7년 제2기.

\_\_\_\_, 「也說“南玲北梅”——兼談如何看待“口述歷史”」, 『中文自學指導』, 2007년 제1기.

김은희, 「1940년대 女性小說의 一面: 梅娘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004.

최은정, 「한중 현대여성서사에서 나타나는 '광기': 백신애의 「광인수기」와 메이양의 「수술하기 전」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 제 19집,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otherhood in Meiniang's literature : focusing on *Crab*, *Dwarfs* and *Before the Operation*

Jung, Keo Yul

Meiniang was a leading female writer active in Manchukuo and Huabei area during 1930's and 1940's. Still, her life and literature has not yet received deserved attention in the studies of Chinese modern literature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China after liberation and 1949 revolution. Since the 1980's, new research on Meiniang and her works have been frequently coming out in China,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so far has been conducted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female consciousness. Meiniang's novels clearly revealed the miserable reality of women who were alienated from society at the time, especially during Japanese occupation, reflecting the intense sense of women that the author reveals through the woman gaze on prevailing society. Clearly notable feature in Meiniang's literature is the trauma from her mother's absence when she was a child and therefore notion of motherhood is very prominent not only in her literature but also in her personal life. In particular, the reasoning and exploration of maternal instinct is one of the main pillars of Meiniang's literature. Build around this observation, this study on Meiniang's novels, aims to show how this reflects the writer's psychology and expression of motherhood in her literature.

**Key words** : Meiniang, female literature, literature of Japanese occupied areas, maternal instinct, motherhood, mother figuration, trauma

투 고 일 : 2021. 4. 10. / 심 사 일 : 2021. 4. 15. ~ 2021. 5. 15. / 게재확정일 : 2021. 5. 20.

